

광주신세계 신축 확장 사업 '금물살' 탄다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 신축 지구단위계획 변경 10월 완료
강기정 광주시장 "개문발차 상생협약하며 인허가 절차 진행"



광주신세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과 신세계 신관 야외주차장 등을 합한 연면적 7만5148평(24만8422㎡), 영업면적 3만 3000여평 부지에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지하 8층~지상 9층 규모의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을 신축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원 하나 때문에 좌초위기를 겪었던 광주신세계 신축 확장사업이 신속 행정을 앞세운 광주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민원 주체인 금호월드측의 상생 의지가 맞물리면서 금물살을 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3자 협의체(광주시-광주신세계-금호월드 관리단)를 통한 상생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내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민선 8기 광주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문제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날 정치권에서 쓰는 개문발차(開門發車) 개념을 소개하면서 광주시, 신세계, 금호월드 관리단 등 3자 협의체 간 상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시 건축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한 뫼로 묶여있던 인허가 절차와 상생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적용, 상생 협상 결과 등과 별개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과거에는 상생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인허가가 진행됐는데(2015년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무산 당시) 상생 논의가 종료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한 발짝도 못 나간 경험이었다"며 "이번에는 다행히 3자 모두 상생 협의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어 인허가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2015년 당시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과 함께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금호월드 등

일부 상인 반대와 정치권 개입 등으로 막판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광주 대신 대전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건립했고, 이 시설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대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한 번의 실패를 겪은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다시 한번 9000억원 규모의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했으나, 2015년처럼 또 다시 악성 민원 등에 발목이 잡혀 1년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 시장이 이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오는 2027년까지 9000억원을 들여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신세계 신관 야외주차장 부지 등을 합해 연면적 7만5148평(24만 8422㎡), 영업면적 3만 3000평, 지하 8층~지상 9층 규모의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을 신축한다.
특히 '아트 앤 컬처 파크'라는 이름을 붙여 국내

최고 수준의 미술관급 갤러리와 체험형 예술공간, 서점, 반려동물 공원, 육상 레스토랑 등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 해외 명품인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입점 등을 통해 기존 브랜드 매장의 2배 수준인 1000개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확장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2만 500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00만 뷰



임의진 광주 순례기-미술관 옆 동물원 ▶11면
굿모닝 예향 - 멋과 맛 완도 유람 ▶18·19면
항저우아시안게임 사격 금은동 '탕탕탕' ▶22면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 영장심사 받는다

변호인과 함께 서울지법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대표는 곧장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심사 전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경호 안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일 의료진들의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이동 동선이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의 PPT 설명, 변호인의 반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시간을 갖고, 이 대표의 진술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인한 200억원대 손해 야기, 정략 대가로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 대납 요구,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 등이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각각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2020 성남도시개발계획' 등 내부 문건과 당시 업무 담당자 진술에 근거해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라고 재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